

성도재일기념 승보공양대법회서 108명의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에게 황금색 보자기로 포장한 공양물을 정성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스님들은 합장한 채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을 다짐했다.



법석에 오른 종정 진제 스님이 대중에게 일념으로 화두 참구를 당부하고 있다.



도량청정결계를 위해 향탕수를 뿌리는 스님들.

승보공양으로 수자타 된 부산불자들

조계종부산聯, 제7회 성도재일기념 대법회 봉행

승보공양, 삼보 수호 전통 이어
불제자 의무 돌이켜 정진 다짐
2000여 사부대중 佛法 찬탄해
"일념으로 화두 들고 정진하라"

부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재가불자 108인이 황금색 보자기로 정성스레 포장된 공양물을 든 채 가사장삼을 수한 스님들 앞에 섰다. 불자들은 공양물을 눈썹 위로 들어 올렸다가 짧은 기도 후 합장한 스님들 앞에 내려놓았다. 공양물을 전한 불자들과 이를 받은 스님들은 서로 합장인사를 올리며,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성도를 깊이 찬탄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 유미죽 공양을 올린 수자타의 정성이 부산서 재현된 것이다.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승보공양대법회 현장에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월 21일 부산항 컨벤션센터 5층에서 '제7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매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인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열고 의미를 되새겨왔다. 승보공양대법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승보공양을 통해 불·법·승 삼보를 수호할 의무와 공덕을 함께 알리는 자리다.

승보공양대법회는 먼저 신묘장구대다라니 합송으로 시작해 향탕수를 뿌리며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도량청정결계로 이어졌다. 이후 스님들이 입장하자 불자들은 통로를 향해 몸을 돌렸다. 스님들을 향해 합장하며 기도하는 불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불자 모두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다.

이번 승보공양에는 재가자뿐 아니라 스님들도 앞장서 눈길을 끌었다.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품〉 2000부를 스님들과 재가자들에게 나눴으며,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은 〈화엄경 약찬게〉 2000부를 후원했다. 이외에도 한마음선원과 문수선원, 능인향당, 김해 반야라마, 부산불교여성개발원 등 많은 승·재가가 동참했다. 법회 후에도 미처 공양에 참여하지 못한 불자들은 후원금을 보시함에 넣고 공양을 올렸다.

승보공양 후 종정 진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사부대중 모두 용맹정진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세 가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활 속에서 언제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참구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이 화두가 일념에 지속돼야 한다"고 법문했다.

법문 후 무비 스님은 공양을 올린 재가불자를 위한 〈축복경(망갈라숫타)〉을 낭독하며 대중 행복을 기원했다. 이에 앞서 홍법사·혜원정사·해광사·대광명사 등 사찰 신도 62명이 직접 준비한 육법공양을 불단에 올렸으며, 양재생 조계종 부산연합회 신도회장의 환영사와 회장 심산 스님의 대회사로 행사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재가자를 대표해 양재생 신도회장은 "법희 선열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수행을 밑받침으로 삼아 많은 일을 해왔다. 이에 스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코자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장 심산 스님은 "이 법회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재가불자는 승보에 공양을 올림으로써 더욱 신심을 고취시키고, 스님들은 수행과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답하는 환희의 법석"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불교 대화합과 다가올 세계 화합의 마당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다.

내빈들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불자들은 승보를 받들고, 공양을 받은 스님들은 정법안장의 책무를 느껴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승보공양대법회를 통해 승가를 예경하고, 신심을 고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재가내빈 중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이 축사로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스님들에게 3배를 올려 승보공양에 동참한 재가불자를 대신했다. 이후 연합회는 공로자 시상식에서 이승표 前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에게 개인상을, 선향다회에 단체상을 수여했다.

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은 승보공양에 동참한 것이 더 없는 기쁨이자 복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분남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은 "보시를 하려면 보시하는 사람과 보시 받는 사람 그리고 보시물까지 3가지가 청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표현한다"며 "이 거룩하고 여법한 법회에 동참해 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진희 범어사불교청년회장은 "지난해 처음 승보공양이 열렸을 때 새롭고 좋아서 계속 열리길 발원했다. 올해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신심 난다.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재가자 108인 공양단에 참여한 이성경(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불자는 "공양물을 준비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정성이 오롯이 전달되길 기원했다"며 "공양 올린 분들도, 받으시는 스님들께서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승보공양은 단순히 공양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불제자로서 서로의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다시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무비 스님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후 삼보를 보호하고 받드는 신도가 탄생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삼보는 신도들의 보호와 귀의를 받으면서 열심히 수행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세상의 사표가 돼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보공양에 대해 "오늘 날 새롭게 승보공양법회를 열어 행사를 하는 것은 신도와 스님들이 서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운동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 여법한 불교를 펼쳐보자"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승·재가 승보공양 후원 동참 신청을 받고 있다. 후원은 매월 정기 후원과 일시불 및 공양물로 동참 가능하다. (051) 501-7554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